

테마칼럼

평화로 세상만기

이웃과의 유익

빛과 그림에 삶여

평화·문화·미래

미래를 가로막는 과거에의 짐착



안톤솔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에 적응해 가는 것이 바로 기억을 잘 간직하고 다가올 미래를 더욱 소중하게 하는, 그리고 그 기억이 시간과 장소에서 벗어났다고 해도 소멸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광주에서 산지도 6년이 되어가며 지나온 시간과 함께 나 자신을 광주 시민의 한 일원으로 느끼게 되었다. 여기서 결혼도 하고, 내 아들도 이곳에서 태어났으며 앞으로의 인생을 이 도시에서 살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지난 수년간 광주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기쁨이었다. 광주는 2003년 광주에 왔을 당시 느꼈던 곳과 매우 다르며 대부분의 변화는 긍정적인 발전이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많은 외국인들이 이곳에 거주하게 되고 국제적인 프로젝트와 이벤트가 개최되는 등 점진적인 국제화가 이루어지면서 광주는 나에게 좀 더 매력적인 거주도시로 다가왔다.

이러한 변화의 가장 핵심 중 하나가 광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의 변모로 보인다. 광주와 전라남도가 가나인 전통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지니고 있다지만 이 사업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 역시 이러한 야심 찬 프로젝트를 지켜볼 수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기쁘게 생각하며 이는 향후 광주에 비엔날레를 넘어서는 국제적 명성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에 대한 나의 기쁨도 최근의 5·18 단체와 문화체육관광부 간의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건립에 대한 다툼으로 인해 크게 무뎠다. 이 다툼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데 문제해결 지점에 이르고 있기보다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수 개월간을 지켜보며 내 안에서는 노여움이 쌓였고 지난 13일 5·18 단체의 일부 회원들이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대표를 폭행했을 때 나는 광대 도시의 중요

한 향후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영원히 과거 지향적인 이들에 대한 나의 커져가는 실망감을 표출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내가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많은 한국인은 5·18민주항쟁이 지나는 중요성, 한국사와 특정 광주시민에게 주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감히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내 합부르크대학교의 석사 논문의 주제가 한국사였으며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독일인으로서 과거 어두운 역사의 기억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뜻인지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과거의 잘못된 행위를 절대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역사의 기억을 지켜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과거를 보존한다는 것과 단지 과거에 매달려 콘크리트 건물에 집착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과거를 간직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머리와 가슴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 기억의 정신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 이상 살아 숨 쉬지 않는다면 좋은 건물이 지어질수록 무슨 소용이 있었는가?

이와 함께 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보면서도 5·18정신을 지켜나가려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에 의해 그날의 참된 정신이 얼룩져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5·18민주항쟁은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싸워나간다는 의지를 보여준 가선이다. 하지만 내게는

전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했던 이들 중 몇몇은 현재 과거에만 사로잡혀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5·18민주항쟁은 한국이 냉혹한 독재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하지만 나는 최근에 광주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다. 더 이상 대화를 통해서가 아닌 주먹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사실화 되어가고 있다면 이는 마치 자유로운 한국과 그들의 의사를 표출할 권리를 위해 싸우다 죽어간 이들의 무덤을 밟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5·18민주항쟁이 남긴 자라난 콘크리트 벽에 매달리는 것과 허영심과 자만심이 자유와 풍요의 기치 위에 군림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판단 말인가?

나는 광주의 과거가 도시의 미래를 망치지 않고 사람들이 역사와 그 기억을 영원히 간직하는 것이 다른 많은 방법으로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에 적응해 가는 것이 바로 기억을 잘 간직하고 다가올 미래를 더욱 소중하게 하는, 그리고 마침내 그 기억이 시간과 장소에서 벗어났다고 해도 소멸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아마도 이 교훈이 광주가 독일에서 배울 수 있는 한가지가 아닐까 생각한다.

<조선대 독어교육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사채 공무원 기강해이 해도 너무 한다

최근 일선 공무원들의 비리와 기강해이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19일 화순군의 각종 비리와 관련해 전 전남 부지사 사동 고위급 전직 공무원 4명과 현직 8명 등 총 12명의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에 앞서 광주 남구청에 근무하는 직원 2명은 4개월간 광고물 게시 수수료 등 구 예산 2천9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얼마 전에는 해남군 7급 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복지급여 11억 원을 5년 동안 빼돌려 해외여행과 자동차 구입 등에 사용해 충격을 안겼다.

이뿐만이 아니다. 곡성에서는 담당공무원의 업무태만으로 인해 정신지체 장애인 가족의 월소득이 높게 책정되는 바람에 수년간 정부의 지원금을 적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화순군의 비리에는 무려 12명에 이르는 전·현직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점에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화순군 안락의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은 전 전남 부지사, 전 전남도 방호과장, 전 부군수, 전 군수 비서실장 등 전직 4명과 화순군 인허가 담당 5명, 계약담당 3명 등으로 이들은 수취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아무리 일부 공무원들의 비리라고는 하지만 해도 너무하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이런 보도를 접하는 국민들은 씁쓸하기 짝이 없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실직자 100만 명이 눈앞에 다가온 경제난 국이 아닌가.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된 공무원들이 대민복사를 강조해도 부족할 판에 비리나 저지르고 있다니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

자치단체는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공직기강을 다잡아야 한다. 감찰시스템을 강화해 비리를 근절하는 한편 공직사회 내부의 자정기능을 되살려야 한다. 나라가 풀릴 대로 풀린 공직사회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교과부, 수능 원자료 공개 신중해야

교육당국이 대학 수능 성적 원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한나라당 조진혁 의원이 수능 성적 원자료 공개를 요구한 데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19일 16개 시도 및 230여개 시군구 단위로까지 원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수능 원자료가 공개되면 고교·지역별 학력차가 그대로 드러나 고교 평준화 체제의 근간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된다.

교육과정평가원은 수험생 개인정보와 학교명을 밝히지 않은 채 지역별 학교명 대신 일련번호 등을 붙여 성적을 공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수능 점수가 학교·지역·계층별로 큰 차이가 나는 현실에서 수능 원자료 공개는 학교·지역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출세우기 현상을 불러올 게 뻔하다. 더욱이 고교선택제를 시행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고교 서열제나 입시과열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사교육 과열을 부추겨 공교육을 더욱 부실하게 하는 부작용을

낼 수 있는 것이다. 수능 원자료 공개에 대한 교과부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도 이해할 수 없다. 교과부는 조 의원이 제기한 원자료 공개 소송에서 행정법원이 공개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하겠다고 태도를 돌변하니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수능 성적은 고교 평준화 체제와 직결되는 정보다. 더욱이 공신력 면에서 학업성취도 평가와는 비교가 되지 않아 성적공개에 따른 파장이 학업성취도 평가 때와는 차원이 다르다. 자칫 수능 원자료의 공개가 공교육 붕괴라는 엄청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교육 경쟁력 강화보다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되는 수능 원자료 공개는 신중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거나 충분한 여론수렴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한 뒤 공개해도 늦지 않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중고칼럼

홍숙현



오늘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봉고차로 우리 어린이들을 데려오는데 학기초라 그런지, 몸 마음이 좀 피곤해서일까?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렇듯 출가한 것은 아닌데... 짐을 해지려 한다. 다른 동지들은 이 시간에 이런 일은 하고 있지 않을 텐데... 피리에 피리를 무는 생각들... 그러다 문득 어딘가 들려오는 소리 "돌이 아니다. 네가 하고 있는 이 일들과 수행이 돌이 아니다" 삶의 일들이 돌로 보인다. 수행과 세

이들을 보면 역으로 불안하다. 언제 그들이 일어날지... 대체로 처음엔 적응하는 듯이 보이던 아이들도 며칠 지나면 더 크게 불안해하면 울어버리는 모습을 많이 봐왔다. 소리쳐 우는 모습과 적응이 돌이 아니라... 사찰에 들어갈 때 흔히 보이는 "불이문(不二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대되는 모습은 반대이고 좋고 나쁜 것이라고 나누어서 보게 된다. 빛과 그림자, 사랑과 미움, 괴로움과 즐거움, 음과 양, 부적응과 적응...

'돌이 아니다' 를 되뇌이며

속의 일상생활이 돌로 보이고, 성과 속, 행복 불행, 괴로움과 즐거움, 사랑과 미움...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도 돌로 보였 다. 특히 어린이집에 처음 온 어린이들은 대체로 엄마를 찾으며 소리쳐 운다. 그런 아이들을 볼 때 예전엔 '저 애가 잘 다닐 수 있을까?' 걱정하며 달려온 했다.

삶의 양면은 동전의 앞뒤면 같이 돌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돌이라는 사실을 세상살이하면서 점점 눈이 떠져 가는 것 같다. 번뇌와 보리가 서로 다른 돌이 아니라 번뇌 없는 깨달음이 있을 수 없듯이, 세상살이를 떠난 수행은 제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학기초의 번뇌 속에서 언뜻 엿보게 된다.

하지만 많이 겪다 보니 오히려 그렇게 소리쳐 울던 아이들이 그 기간? 적응 시기가 지나가면 어린이집 생활을 더 모범이 되게 잘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울며 불며 엄마 찾던 아이들이 오히려 환경변화에 민감한 아이들, 감수성이 풍부하고 예민한 똑똑한?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런 처음 와서 잘 안 울고 잘 다니는 아

“자기가 맡은 직장에서 그 일 그 일에 힘과 마음을 다하면 곧 천지행(天地行)을 함이 되나니라”라고 하신 스승님의 말씀이 떠오른다. 무슨 일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 <원불교 비아교당 보좌교수>

일자리 대부분이 계약직, 현실성 있는 정책 펼쳤으면

필자는 작은 사무실을 임대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당장 회사 정문에서 만나는 경비원은 2년 기간제로 고용된 분이다. 경비원은 지나 두 번째 만나는 사람은 아침마다 사무실을 청소해 주는 50대 아주머니인데 이분은 계약직도 아닌 파견직이다.

회사와 파견업체와의 관계가 나빠져서 앞으로 그 업체와 거래를 끊을지 모른다는 흉흉한 소문에 무척 불안해하고 있다. 식당에서 만나는 40대 아주머니와 커피전문점 직원은 일용직과 파트타임 근무자다. 할인점 직원과 판매사원은 파견직이고 택배서비스 직원은 특수고용직이다.

그리고 우리 사무실 옆에 근무하는 직원 2명도 파견업체 소속인데 그중 한 명은 한 달전 출산휴가를 간 정규직 대신 3개월간 근무하는 중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다 일용직, 파견직, 계약직 천지다. 이래 가지고서는 경제를 살린다고 쏟아붓는 천문학적 비용도 다 도루묵일 수밖에 없다. 경제 주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측 가능한 미래, 즉 안정적인 직장과 고용이다. 이걸 정부가 알아야 하며 거기에 맞는 정책을 펴주기 바란다. <안호빈·광주시 남구 원산동>

우리 빌딩 주인의 비서실 직원도 정규 대학에서 비서행정학을 전공했지만 비정규직이라 사내에서도 다른 직원들과 달리 차별감을 느낀다고 한다. 그 회사 고역서비팀 중 몇 명도 파견직이다. 그런데 요즘 그

기고

김승효



오는 22일은 열일곱 번째로 맞는 '물'의 날이다. 올해 '세계 물의 날' 주제는 '2개발 이상에 걸쳐있는 국제하천의 이용·개발·관리의 효과적 운영(Transboundary Water)'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21세기는 물의 시대이며 앞으로의 국가경쟁력은 물을 얼마나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물이 지구 온난화 등 이상기후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다. 이상기후에 따른 가뭄과 계절라 다. 전문가에 따르면 향후 35년 이후에는 물 사용량이 2배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최근의 가뭄은 2001년의 가뭄이다. 전국적으로 3월부터 6월까지 영향을 받았는데, 지역별로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게는 10%, 많아야 68%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1967~1968년의 가뭄은 70년만의 대가뭄으로 기록되고 있다. 전라남도 지역에서 이 기간 동안 도민의 3분의 1 이상 인 140만명이 식수난을 겪었으며, 가뭄으로 인한 손실이 6천억원

심화되는 이상기온 물관리로 극복하자

성 홍수는 물부족으로 이어져 우리의 생존마저 위협 할 수 있다. 우리 국토에 내리는 연평균 강수량은 1천245mm로 세계평균 880mm의 1.4배이다. 그러나 높은 인구밀도 때문에 국민 한 사람당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8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기후적, 지형적 특성뿐만 아니라 향후 전방 및 과거의 경험을 고려하면 물공급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가 요구된다. 광역급수나 물 사장이 좋은 곳에서 좋지 않은 곳으로 물을 보내는 상수도간 연계운영 등 급수체계 개선 노력뿐만 아니라 물 저장 그릇을 만들어 근본적인 수량의 확보 및 효율적 이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4대 강 살리기 등 물 관련 사업들은 극한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이상기후에 대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총 강수의 70%가 6~9월에 집중되고, 내륙과 해안의 지역적 편차가 클 뿐만 아니라 연도별, 계절별 강수량 편차도 크다. 우리나라의 과거 100년 간 연 강수량 추이를 보면 1939년에는 754mm의 매우 적은 비가 내렸지만, 2003년에는 이보다 2.4배나 많은 1천 792mm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국토의 65%가 산악지형이라는 우리나라 고유의 지형 특성상 '동고서저형'이고 하천의 경사가 급하며, 이에 따라 강수가 빠르게 유출되고 유량변동폭이 크다. 물의 수요자체는 지난 30년 동안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급격히 증가했

어라든 고항에서 양돈업을 한다며 외지에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축사를 지어놓고 1년 조금 넘게 양돈을 했다고 한다. 그러다 얼마전 부도를 맞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부도 맞은게 실제로는 부채를 충분히 갚을 수 있는데도 일부러 부도를 냈다는 소문이었다. 결국 그 양돈 농민들은 떠났지만 아무도 그들을 아는 사람은 없다. 남겨진 소문은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돈을 좀 남기고 고의로 부도를 내고 나갔을

거러는 추측뿐이다. 이렇게 빚을 안 갚으려고 거짓 부도를 내고 달아나면 그 피해는 누가 보나?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면 농협이나 다른 은행기관들이 대출을 엄격히 제한하기 때문에 상당한 다른 농민들이 피해를 본다. 농촌에 이 같은 도덕적 해이를 부르는 가짜 부도, 가짜 파산 판결이 관치치 않도록 관련 법규를 더 강화하고 또한 철저히 가려내 주었으면 좋겠다.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서원관리단 단장>

비양심 '고의부도' 법규 강화해 선의피해 없애야

가려라 추측뿐이다. 이렇게 빚을 안 갚으려고 거짓 부도를 내고 달아나면 그 피해는 누가 보나?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면 농협이나 다른 은행기관들이 대출을 엄격히 제한하기 때문에 상당한 다른 농민들이 피해를 본다. 농촌에 이 같은 도덕적 해이를 부르는 가짜 부도, 가짜 파산 판결이 관치치 않도록 관련 법규를 더 강화하고 또한 철저히 가려내 주었으면 좋겠다.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서원관리단 단장>

▲정미현·광주시 광산구 북동동

시설

지사채 공무원 기강해이 해도 너무 한다

최근 일선 공무원들의 비리와 기강해이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19일 화순군의 각종 비리와 관련해 전 전남 부지사 사동 고위급 전직 공무원 4명과 현직 8명 등 총 12명의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에 앞서 광주 남구청에 근무하는 직원 2명은 4개월간 광고물 게시 수수료 등 구 예산 2천9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얼마 전에는 해남군 7급 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복지급여 11억 원을 5년 동안 빼돌려 해외여행과 자동차 구입 등에 사용해 충격을 안겼다.

이뿐만이 아니다. 곡성에서는 담당공무원의 업무태만으로 인해 정신지체 장애인 가족의 월소득이 높게 책정되는 바람에 수년간 정부의 지원금을 적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화순군의 비리에는 무려 12명에 이르는 전·현직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점에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화순군 안락의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은 전 전남 부지사, 전 전남도 방호과장, 전 부군수, 전 군수 비서실장 등 전직 4명과 화순군 인허가 담당 5명, 계약담당 3명 등으로 이들은 수취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아무리 일부 공무원들의 비리라고는 하지만 해도 너무하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이런 보도를 접하는 국민들은 씁쓸하기 짝이 없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실직자 100만 명이 눈앞에 다가온 경제난 국이 아닌가.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된 공무원들이 대민복사를 강조해도 부족할 판에 비리나 저지르고 있다니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

자치단체는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공직기강을 다잡아야 한다. 감찰시스템을 강화해 비리를 근절하는 한편 공직사회 내부의 자정기능을 되살려야 한다. 나라가 풀릴 대로 풀린 공직사회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교과부, 수능 원자료 공개 신중해야

교육당국이 대학 수능 성적 원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한나라당 조진혁 의원이 수능 성적 원자료 공개를 요구한 데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19일 16개 시도 및 230여개 시군구 단위로까지 원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수능 원자료가 공개되면 고교·지역별 학력차가 그대로 드러나 고교 평준화 체제의 근간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된다.

교육과정평가원은 수험생 개인정보와 학교명을 밝히지 않은 채 지역별 학교명 대신 일련번호 등을 붙여 성적을 공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수능 점수가 학교·지역·계층별로 큰 차이가 나는 현실에서 수능 원자료 공개는 학교·지역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출세우기 현상을 불러올 게 뻔하다. 더욱이 고교선택제를 시행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고교 서열제나 입시과열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사교육 과열을 부추겨 공교육을 더욱 부실하게 하는 부작용을

낼 수 있는 것이다. 수능 원자료 공개에 대한 교과부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도 이해할 수 없다. 교과부는 조 의원이 제기한 원자료 공개 소송에서 행정법원이 공개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하겠다고 태도를 돌변하니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수능 성적은 고교 평준화 체제와 직결되는 정보다. 더욱이 공신력 면에서 학업성취도 평가와는 비교가 되지 않아 성적공개에 따른 파장이 학업성취도 평가 때와는 차원이 다르다. 자칫 수능 원자료의 공개가 공교육 붕괴라는 엄청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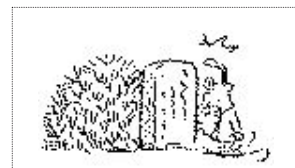
교육 경쟁력 강화보다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되는 수능 원자료 공개는 신중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거나 충분한 여론수렴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한 뒤 공개해도 늦지 않다.

無等鼓

사랑하는 이여/ 나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어 주오 /여기 들꽃처럼 피어/ 긴 세월의 한 점을 지나간/ 사랑으로 살다가 흙으로 사라진/ 고단한 영혼이 잠들어 있네/ 사랑은 기쁨의 순간보다/ 고통의 날이 더 많은 것을/ 하지만 짧은 환희가/머나먼 날들의 힘겨움/ 버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사실을/알고 있던 사람이었다고...

리아 탈케는 "오오 장미여, 순수한 모순의 꽃"이라고 애절함을 표했다. 또 데카르트 "고로 이 철학자는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라고 써 철학에 대한 영리한 열정을 나타내주고 했다. 기행으로 유명했던 중광스님은 "에이, 괜히 왔다"로 자신의 삶에 대한 회한을 드러냈다. 혹자는 묘비명을 '세상에 건네는 마지막 인사'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후회의 총합'이라고도 한다.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다간 김 크립슨이 부른 에피타프(Epithaf·묘비명)의 노랫말처럼 '흔란'이라는 글귀를 새겨 넣지도 모른다. 마라톤 풀코스를 25번이나 완주한 일본 소설가 루라카미 하루키는 "죄어도 끝까지 걷지는 않았다"를 묘비명으로 미리 새겨 삶의 내태함을 경계한다고 했다.

묘비명



서정운 시인의 '묘비명'이라는 시다. 세상을 살면서 어느 누구나 한번은 생각해 볼 것이다. 이 세상을 마치고 무덤 속에 들어간다면 자신 앞에 놓인 묘비에 과연 어떤 글귀가 새겨질 건지...

한 달 전 선종하신 김수환 추기경은 이 세상에 대한 예정을 들뜬 듯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라고 썼다. 시인 천상병은 귀천(歸天)이라고 새겨 자신의 시처럼 이 세상 소풍을 끝냈다.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는 "내 우물쭈물하다 이별 잘 알았다"라는 글귀로 그의 인생을 정의했다. 장미꽃 가시에 찔려 죽은 독일의 시인 라이너 마

하루키는 "죄어도 끝까지 걷지는 않았다"를 묘비명으로 미리 새겨 삶의 내태함을 경계한다고 했다. 삶의 이정표는 사람마다 다르다. 오늘 자신의 묘비명을 한번 써 보는 것은 어떨까. 최소한 앞으로의 삶에 방향을 제시해 줄 수는 있을 테니. /김일환 여원문화부장 kin8@kwangju.co.kr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편집국장 曹慶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독독신문·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92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편 집 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경 처 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경 처 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사회 1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미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D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